

XAVIER LUCCHESI  
**THE UNSEEN**



XAVIER LUCCHESI  
**THE UNSEEN**



XAVIER LUCCHESI  
**THE UNSEEN**

## 기획 노트

김지현

한미사진미술관 학예연구원

한미사진미술관은 2018년 한해 동안 사진의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시도한 국내외 작가들을 개인전과 단체전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로 소개될 프랑스 작가 자비에 루케지의 《THE UNSEEN》 사진전은 의학 진단용,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X선 사진기를 명화에 비취 명화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탐색한다. 많은 작가들이 엑스레이 작업을 선보이고 있지만,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기계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인 반면, 루케지의 작업은 20여 년의 기간 동안 벽이 높은 세계적 명성의 박물관, 미술관의 허가를 받아 엑스레이에 명작을 끌어들이며 우리가 당연히 해온 명작의 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 기발함이 돋보이는 유일무이한 작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모르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본질을 드러내며, 이전에 보인 적 없는, 처음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업하는 자비에 루케지는 수년간 사진작업을 해오다 문득 자신이 카메라라는 기기에 얽매어 테크닉적인 요소에만 집중한 나머지 표현의 한계가 생기고, 작업 결과물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에서 벗어나야 하며, 대부분의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거나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현실을 다른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루케지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과감히 카메라라는 기기, 그러니까 테크닉을 버리기로 한다.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위해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미지 표현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를 통해 이미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진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빛으로 작품을 만들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빛, 즉 엑스레이라는 투과하는 빛으로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 해석을 한다.

빌헬름 린트켄이 1895년 다른 연구 중 우연히 자신의 손을 투과하는,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을 발견하였고, 그 즉시 과학계와 의료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빛은 신비하게도 투과력을 가졌고 쉽게 반사되거나 굴절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 빛의 강력한 투과력은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게 했고, 사람들은 ‘미지’라는 뜻의 X를 붙여 ‘X선’이라고 불렀다. 루케지가 엑스레이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단순한 투과력보다는 X선으로 마주하게 될 미지의 세계를 기대 했기 때문일 것이다.

루케지는 세계적 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X선 촬영을 하고 작업하였다. X선 촬영 후 얻어지는 한 장의 2차원적 X선 데이터 안에는 셀 수 없는 3차원의 입체적 레이어들이 숨어 있었고, 작가는 그 안쪽에 숨겨진 이야기를 선별하여 자신의 작품에서는 오히려 앞쪽으로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대표적 사실주의 작가 구스타브 쿠르베의 〈부상 당한 남자〉는 가슴의 상흔을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자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이기 커녕 오히려 평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루케지의 작업에서 이 작업의 숨겨진 이야기가 밝혀진다. 이 그림은 쿠르베가 사랑했던 여인을 품에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었다. 한번 그린 그림을 수정하지 않기로 유명한 쿠르베가 10여 년 후 연인과 헤어지고 품에 안고 있던 연인 대신 가슴에 피를 흘리는 상처로 수정한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쿠르베의 작업을 논하던 이들에게 논의를 뒤집는 파격적인 발견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경우, 잊혀진 역사적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1956년 12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볼리비아 출신 남성이 돌을 던져 액자 전면 유리를 깨뜨리며 〈모나리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상처가 생긴 사고가

있었다. 세계 던져진 돌은 수많은 겹의 붓질의 깊은 속까지 상해를 입혀 그림의 바탕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었다. 사고 덕분에 작품의 본질과 구성 요소가 육안으로 처음 확인되었다. “이 상처는 레오나르도가 패널에 입힌 코팅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었고 완벽히 복원했다.”라는 당시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지만, 루케지의 모나리자에는 선명하게 그 상처가 남아있어, 다시 세간의 인터뷰를 뒤집었다.

뿐만 아니라, 파블로 피카소의 〈여성 홍상〉 조각을 작업하던 루케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조각 안에 마치 스킨을 두르고 춤을 추는 듯한 철사로 된 형상을 발견하는데, 이 구조물은 〈여성 홍상〉 조각의 결과물과는 전혀 무관한 구조물이라는 사실이다. 프랑스에서는 연구 중의 첫 발견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루케지는 이 형상에서 자신의 아내 도미니크가 어여쁜 딸 멜로디를 품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돌의 이름을 섞어 도미멜로라고 붙였다고 한다.

이처럼 자비에의 ‘투과하여 보기’는 단순 작품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해석을 제시할 뿐 아니라 작품의 역사를 한눈에 제시하기도 한다. 이번 자비에 루케지 《THE UNSEEN》 사진전은 이렇듯 숨겨진 이야기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동시에, 사진의 대상 속에 숨어있는 사회문화적인 의미 또한 읽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엑스레이 사진의 정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엑스레이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Curator's Note

Jeehyun KIM

Curator of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International and Korean artists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forms of photography can be met this year in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The series of group and solo exhibitions will start off with French photographer Xavier Lucchesi's *THE UNSEEN*. It tells enchanting stories hidden inside famous artworks revealed by x-ray camera, an apparatus often used for medical or industrial purposes. Many artists use x-rays in their works but often they end up with routine results rather than making fundamental approaches. For more than 2 decades, Lucchesi went to renowned museums and institutions from around the world that are difficult to access to seek their approvals and lay those masterpieces underneath an x-ray camera. The results are one of a kind that radiate with brilliant ideas, presenting new vision to the interpretations we have taken for granted. They uncover the essence lying between the known and unknown, as well as the visible and invisible, to expose the fact that was never seen before.

As an artist based in Paris, after working on photography for several years Xavier Lucchesi suddenly realized he has been so obsessed with this instrument named camera, as well as to its techniques that he is unknowingly limiting the boundaries of his expression which made all of his work identical. It became clear to him that he needs to escape from the present where everyone views the image the same way, and note the importance of seeing those realities that are formulated or stereotyped in different forms. So from 25 years ago, Lucchesi boldly abandoned his camera and the techniques. To ensure artistic and creative results, he felt the need to free himself. He changed the method of expression entirely, by starting to view the image through hospital-used x-rays. Normally photography creates art by using physically identifiable source of lights

but Lucchesi's work interprets the image at a new level with the invisible, penetrating light—the x-rays.

In 1895, Wilhelm Röntgen was in the middle of another experiment when he discovered this light invisible to the naked eye that penetrated through his hands. Instantly the discovery became a sensation in the world of science and medicine. Mysteriously enough, while this light had penetrating powers it did not easily bounce off or refract. The strong penetrating power of this light made it possible to photograph the bones of live human being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was named 'x-rays', 'x' indicating the 'unknown'. Lucchesi most likely chose to use x-rays not just because of its penetrating characters but because he expected an unknown world that he will face as he used x-rays.

Lucchesi selected artworks collected in world class museums and institutions that are some of the most crucial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In a piece of 2 dimensional x-ray data obtained from x-ray shooting, countless 3D layers are hidden within. The artist sorts through those stories inside to bring them forward and reveal to us by his works. *The Wounded Man* by classic realist Gustave Courbet shows a man bleeding from a wound in the chest and dying. Yet the man's face is at peace instead of in pain. Lucchesi's art unveils its hidden story. The painting was originally a self-portrait, depicting a man holding the woman he loves in his arms. Although Coubert is well known for never changing a painting once he has finished it, he modified this one 10 years after its creation when his love came to an end, replacing the woman with a bleeding chest wound.

Lucchesi's work of Leonardo da Vinci's. *Mona Lisa*

reminds once again a forgotten historical fact. At 4:30 pm, December 30, 1956, a Bolivian man threw a rock at this masterpiece, breaking the protecting glass. The stone flung at the canvas left behind a scar near *Mona Lisa*'s left elbow and it damaged multiple coats of paint to expose its bottom layer for the first time. Due to the incident, the essence and composition of the artwork were physically confirmed by the eye. An expert interviewed at the time commented "the scar let us know more accurately about the coat applied to the panel by da Vinci and the painting was perfectly recovered" but Lucchesi's *Mona Lisa* shows the scar vividly.

Moreover, while working on Pablo Picasso's *Woman's Torso*, Lucchesi revealed a remarkable finding. From inside the statue, he discovered a figure made of wires that looks like it's dancing in a skirt. This structure was unrelated to *Woman's Torso* at all. In France, the person who makes the first discovery during a research is given the honor of naming the discovery. Lucchesi named it Domimelo from the names of his wife and daughter, Dominique and Melodie, as he thought of his wife holding their beautiful daughter.

Xavier's 'penetrating vision' does not stop at just looking into master pieces but suggests new visual interpretations for those works we are already familiar with, and also exhibits their histories as a summary. Xavier Lucchesi's *THE UNSEEN* exhibition will be a special chance to see with your own eyes those hidden stories and at the same time decipher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buried in the objects of photography. It will also be an opportunity to witness the best of x-ray photography that will lead the way of x-ray photography.

## 예술의 본질을 짚다

심은록  
감신대 객원교수, 미술비평가

고대부터 르네상스의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와 근대 인상주의를 거쳐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서양화가가 ‘빛’(그리스 어원 phos)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다. 그런데, 아예 ‘빛’ 그 자체를 마티에르matière로 사용하는 예술이 ‘사진photo-graphy’이다. 자비에 루케지는 사진기camera를 사용하는 않는 사진작가다. 그러나 그는 25여 년 전부터 엑스레이X-ray 아트를 하면서, 사진의 가장 중요한 마티에르인 ‘빛’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빛의 ‘방’(라틴어 어원 camera)을 더 다양하고 현대화하고 과학화하여 엑스레이, CT, MRI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다. 다수의 중요 미술관과 기관들이 그의 사진예술의 확장, 창의성, 첨단과학과 예술의 새로운 대화를 인정하여 그를 초대하고 있다. 특히, 파리의 유서 깊고 권위 있는 파리 피카소 미술관이 두 번(2006년, 2016년)에 걸쳐 그를 초대한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만큼 피카소 미술관에서는 파블로 피카소를 제외한 다른 작가의 개인전을 보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 예술에서 빛의 확장

‘엑스레이’ 하면, 몸 안의 뼈들이 ‘유령’처럼 떠오르며, 병, 병원, 의사가 먼저 연상된다.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아무래도 즐겁고 행복한 이미지는 아니다. 이처럼 의학적인 위험한 느낌의 빛이 사물과 사람 내면에 숨은 본질을 드러내는 예술적 수단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광의적 의미로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본질’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이 항상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눈과 사고 구조에서 낯설기 때문이다.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엑스레이 아트’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으나, 국내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다. 1895년 독일 물리학자 빌헬름 뢰트겐이 엑스레이를 우연히 발견하여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 영역이 ‘내부의 미술을 위한 도구’로

확장되어, 1913년 고비가 엑스레이로 ‘꽃’을 찍은 책을 출판한 이래, 거대한 보잉777기를 엑스레이로 담은 닉 베세이, 전쟁 혹은 테러리즘을 고발하는 다이앤 코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작업이 선보이고 있다. 마티에르에 있어서는, 노아 스퍼리어가 엑스레이 사진에 색깔을 추가했고, 세이트르 스틸커가 CT 스캐너를, 로라 퍼거슨은 MRI 스캐너를 사용했다. 엑스레이 사용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한 의학용 기기를 사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큰 기업이나 병원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더욱이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등 가격과 가치를 초월하는 작품들을 스캔하여 작품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자비에 루케지가 유일한 작가다.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물론, 이 작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고가 설비로 인한 후원 요청 등 그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온 것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처럼, 이번 전시에는 다른 엑스레이 작가들은 할 수 없는 바로 그만이 가능했던 작업을 보여준다.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두아드 마네, 빈센트 반 고흐 등과 같은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작품, 또한 피카소, 구스타브 쿠르베 등의 작품들이 그의 미술 재료가 된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초상화이자,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산이기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1452–1519)도 그의 작품 주제의 하나다. 〈모나리자〉는 그 자체로 근현대 미술사다. 수없이 많은 작가가 자신들의 독특한 스타일로 〈모나리자〉를 재현해 왔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마르셀 뒤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고 동시에 모든 고전 미술의 권위를 비웃으며 〈L.H.O.O.Q〉(1919)를, 페르난도 보테로는 뚱뚱하고 넉넉한 〈모나리자〉(1973)를, 앤디 워홀은 팝아트적 〈모나리자〉(1963)를, 살바도르 달리는

손안에 동전을 가득 쥐고 있는 자본주의적 〈모나리자〉(1954)를, 검은 피카소라고 불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는 모나리자를 미술관에서 끌어내려 거리 벽에 장난스럽게 낙서해놓은 듯한 〈모나리자〉(1983)를 그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디지털 세대에 걸맞게, 루케지의 〈다빈치, 모나리자〉<sup>1)</sup> 연작이 만들어졌다. 루케지는 미셸 푸코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1973)에서 말한 것처럼, “유사ressemblances에 대한 상사similitudes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기다란 계열선을 따라 무한히 이동하는 상사에 의해, 탈-동일화되는 날”을 앞당겼다.

### 본질 혹은 내부의 풍경

역설적이게도 이번 전시에는 처음 보는 작품인데도 제목까지 짐작할 수 있는 친숙한 작품들이 많다. 방금 언급했던 〈다빈치, 모나리자〉가 그러하며, 또한 〈쿠르베, 파이프를 물고 있는 남자〉도 그렇다. 그림 속의 스물일곱 살의 쿠르베는 당시 몇 번의 살롱전 입선으로 자신만만하고 다소 오만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러한 쿠르베의 머리에 의문의 불그스레한 보닛이 얹혀있어 갓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또 다른 〈쿠르베, 샘〉에는 풍만한 여인이 바위에 걸터앉은 뒷모습이 보인다. 여인의 왼쪽 발은 계곡의 물에 담그고 있으며 오른쪽 손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잡고, 왼손으로는 흘러내리는 맑은 물에 적시고 있다. 원작인 쿠르베의 〈샘〉에서는 여인 한 명뿐인데, 루케지의 엑스레이 작품에서는 또 다른 한 명이 보인다. 원래 서 있는 나부 한 명을 그리려고 했는지 혹은 두 명을 그리려고 했는지,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하는 중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없는 질문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작품 중의 하나는 〈피카소, 여성 흉상〉이라는 작품이다. 신석기시대의 풍요 여신이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조각 안에 놀랍게도 또 다른 작품이 숨어 있다. 첫눈에는 ‘왜 자코메티의 작품이 그 안에 있는지?’ 물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닮았다. 물론 조각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철골 형상이 필요하지만, 여성 흉상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문과 놀라움을 담은 채, 루케지는 이 작품을 신비하고 푸르스름한 빛으로 재현하여 또 다른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루케지의 작업은 이처럼 무한한 질문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료한 답을 주기도 한다. 미소를 짓게 만드는 루케지의 〈피카소, 새〉는 피카소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새의 두 발은 두 개의 포크로 만들어졌으며, 고리볼트는 새의 눈으로 사용되고, 나무판자는 새의 몸통이 되었다. 같은 작가의 비슷한 방식의 야상블라주일지라도, 루케지의 접근 방식과 재현 의도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올빼미는 미노타우로스와 함께 피카소를 매혹시킨 동물이다. 피카소의 〈작은 올빼미〉에서는 그가 직접 올빼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키우며 ‘작은’이라는 애칭까지 붙일 정도로 살가운 애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철골 구조물이 명료하게 보이는 루케지의 〈피카소, 작은 올빼미〉는 이륙 단추를 누르면 금방이라도 솟아오를 듯한 현대화된 비행 물체 같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봐왔던 작품들을 ‘내적 풍경’으로 재해석하자 다른 해석과 다양한 감성이 솟아 나온다. 루케지는 그의 작업을 통해 과거 미술사를 다시 방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묻힐 뻔한 진실을 발견하게도 한다.

이제 눈에 익지 않은 낯선 작품도 둘러보자. 유서 깊고 역사적이며, 무거운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 작품들 가운데, 갑자기 디즈니랜드의 만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이 보인다. 한 작품은 주홍색과 노란색 빛이 지배하며, 장난꾸러기 심술궂은 새의 얼굴이 연상된다. 또랑또랑한 눈 밑에 툭 튀어나온 거대한 부리 사이에 잡초 같은 무언가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다. 분위기와 주제를 이탈하는 갑작스러운 작품에 서둘러 제목을 보니 〈라이베리아〉의 수형신獸形神을 표현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는 아프리카 조각품과 다르다.

1. Cf. 작품명만 있는 〈모나리자〉의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의미하나, 〈다빈치, 모나리자〉와 같이 작품 명 내에 작가 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으면, 자비에 루케지의 엑스레이 작품을 의미한다. 반면, 이 글에서 언급하는 아프리카 관련 작품은 루케지의 작업만 다루기에 작가 명 없이 그대로 작품 명만 기재한다.

이처럼 루케지의 작업은 외형적 피상적인 것의 본질을 드러내고, 오브제 안에 숨어있었던 다른 것들도 발견하게 하며,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한다. 현대 테크놀로지와 작가의 독창성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과 고정관념 사이에 엄청난 상상의 '갭gap'을 만든다. 바로 이 갭이 주는 공간만큼 우리의 해석과 상상력은 점점 더 풍부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빛으로 빛은 작품을 제시하며 관람객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

#### 빛과 공의 대화

“사진은 ‘보이는 것’을 찍지만,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찍는다.”라며, 루케지는 사진과 그의 작업을 구분한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지금까지 서구의 구상 아트가 외부를 재현한 ‘외적 아트’라면, 엑스레이 아트는 ‘내적 아트’임에 틀림없다. 루케지는 “내적 풍경”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내부의 골격도 보여주지만 에너지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예술철학은 “동양의 산수화, 특히 팔대산인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 동양의 산수화는 ‘공’(空, 여백)의 예술이다. 공은 빛의 방이며, 빛은 공 안에서 유희한다. 동양화에서는 ‘공’이 중요했다면, ‘빛’은 서양화에서 그 시작부터 중요한 주제였다. 현대 이전의 서양미술사는 ‘빛’의 미술사, 동양미술사는 ‘여백 혹은 공의 미술사’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많은 올림퍼스 신들이 ‘빛’, ‘광선’, ‘번개’ 등으로 상징되었으며, 르네상스부터 ‘빛’의 재현은 원근법과 함께 그 표현 방식이 체계화되고 보편화된다. 반면에, 동양은 ‘공’ 즉 ‘여백’을 중요시 해왔다. 빛의 발원지(예를 들어, 빛이 들어오는 창문, 불, 태양)가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고, 가끔 달이 표현되기는 하나, 이는 빛의 발원지라기보다 심성적 표현이다. 광원이 표현되지 않다 보니, 한국화의 작품을 보면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빛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 물체의 입체감을 드러내는 명암이나 빛

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림자 역시 재현되지 않는다. 루케지의 작품에서는 빛과 공이 만나고, 빛의 유희가 시각화되고 있다. 오비디우스의 언어적 『변신』에 이어, 피카소는 시각적으로 근사한 〈변신 II〉를 조각했다. 이를 재료로 루케지는 〈피카소, 변신 II〉이라는 또 다른 ‘변신’을 통하여 빛의 방인 ‘공’안에 빛으로 빛어진 작품이 어떻게 유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관람객은 때로는 미술사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작품을 감상해도 좋다. 비록 ‘원본’을 마티에르 삼아 작업을 했지만, 루케지의 작품은 ‘유사’의 관계를 떠나 이미 ‘상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Capturing the Essence of Art

SIM Eunlog  
Guest Professo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rt critic

From the ancient days through Renaissance chiaroscuro leading to modern impressionism, countless artists from the western world have painted the theme of ‘light’. Then there is the genre using ‘phos’ (light in Latin) itself as its matière—photography. Xavier Lucchesi is a photographer who does not use a camera. He has been producing x-ray art from more than 25 years ago, expanding the territory of light, the most important matière in photography. To do so he chooses to use x-ray, CT and MRI scanners as a more diverse, modern and scientific form of ‘camera’ (‘room’ in Latin) of light. Numerous notable art museums and institutions have invited him to recognize the expanded nature of his photographic art, as well as its creativity and its new form of dialogue between cutting edge science and art. It was even more astonishing that he has been invited by the historical and prestigious Musée National Picasso, Paris twice already (in 2006 and 2016), as it is very rare to see a solo exhibition by an artist other than Picasso at this museum.

#### Art's Expansion of Light

X-ray reminds people of the ghostly bones inside the body and brings to mind images of diseases, hospitals and doctors. It is a must needed device but the impression it delivers is not the cheerful or pleasant kind. Such intimidating medical light has become a means of art to reveal the nature hidden within objects and people. I say ‘nature’ because in a broad sense it shows the deep and invisible insides but it does not always feel beautiful. It feels alien in our eyes and minds. X-ray art fusing science with art slowly became known from the 1970s but it’s still a very foreign area to the Korean public. X-ray was discovered by chance in 1895 by German physicist Wilhelm Röntgen

and towed progress in science and medicine. The field then expanded to become a tool of ‘inner art.’ Ever since Goby published a book of x-rayed flower images, different themes were presented by artists like Nick Veasey who x-rayed gigantic Boeing 777 or Diane Covert who used it to accuse war and terrorism. As for matière, Noah Spurrier added color to x-ray photographs while Satre Stuelke used a CT scanner and Laura Ferguson a MRI scanner. It is not an easily approachable field as usage of x-ray itself is quite dangerous, accompanied by technical difficulties of using medical devices which is only accessible with the support from big companies or hospitals. Moreover, the works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are scanned images of priceless artworks by Leonardo da Vinci and Picasso which is almost impossible to make except for Xavier Lucchesi. Not only did he need passion and talent for art to produce these images, but he went through unimaginable difficulties and made tremendous efforts to convince the museum authorities and gather sponsors to sponsor those expensive equipment.

This exhibition displays works that only he can make and no one else. Impressionist and post-impressionist paintings by Edouard Manet and Vincent van Gogh, as well as art by Picasso and Gustave Courbet that are adored by art lovers across the globe are the materials for Lucchesi’s work. One of them is world’s most loved portrait and France’s national treasure, *Mona Lisa* (1452-1519) by Leonardo da Vinci. You can say it is in itself contemporary art history. Countless artists have recreated *Mona Lisa* in his or her own unique ways. Marcel Duchamp celebrated 500th anniversary of da Vinci’s death and mocked the authorities of all classic art with *L.H.O.O.Q* (1919). *Mona Lisa* (1973) depicted by Fernando Botero was plump and



hefty, compared to Andy Warhol's pop-art version (1963). Salvador Dali's capitalist *Mona Lisa* (1954) held two fistful of coins while the 'Black Picasso' Jean Michel Basquiat's *Mona Lisa* (1983) was took down from the walls of a museum and transformed into a mischievous graffiti on back alley walls. Then finally fit to this contemporary age, Lucchesi created the *da Vinci, Mona Lisa*<sup>1</sup> series. As Michel Foucault had stated in *This Is Not a Pipe* (1973), Lucchesi claims "superiority of similitudes against resemblances" and have expedited "the day they ex-assimilate in the hands of the similtudes that move endlessly along the long line of series."

#### Nature or the Inner Landscape

Ironically there are several artworks in this exhibition that you will see for the first time but are so familiar that you can even guess their titles. Aforementioned *da Vinci, Mona Lisa* is one of them, as is *Courbet, Man with a Pipe*. 27-year old Courbet in the painting is full of confidence and even arrogant after receiving several awards at the Salon. Then there is an odd bonnet laid on top of his head, raising many questions. In his other piece *Courbet, The Fountain*, back of a plump woman sitting on a rock is described. Her left foot is submerged in the creek while her right hand holds the branch to prevent herself from slipping and her left hand is feeling the flowing clear water. In Courbet's original work there is only one woman but in Lucchesi's x-ray art there is another person. It's hard to tell if he had initially intended to draw one naked woman standing or two, and if so what they are doing, leaving behind chain of questions and much room for imagination.

One of the most astonishing work of the exhibition is *Picasso, Bust of a Woman*. It is a sculpture similar to the Neolithic goddess of fertility or Venus, and surprisingly

enough there is another artwork hidden inside. At first sight the resemblance is so profound that you will find yourself asking 'what is Giacometti's work doing here?' Steel frames are needed to build sculpture's skeletons but its form is rather distant from that of *Bust of a Woman*. Embracing countless questions and surprises, Lucchesi uses mysterious blue colors to suggest yet another kind of beauty.

Lucchesi's artwork may raise endless questions but at times they provide clear answers as well. His *Picasso, The Bird* distinctively shows how Picasso created this piece. The bird's two legs are made of forks, its eyes from eyebolts, and wooden panels make up the body. Although they are assemblage of similar forms, constructed by the same artist, depending on Lucchesi's approach and presentation methods they appear differently. Owl is an animal that captured Picasso's mind along with Minotaur. It is evident from *Little Owl* how the artist cherished this animal, as he personally treated the wounds and raised it, especially from the world 'little'. Yet Lucchesi's *Picasso, Little Owl* looks like a contemporary flying object about to launch with a push of a button, and its iron structure is clearly visible. Once the habitually appreciated artworks are reinterpreted as 'inner landscape', different perceptions and various emotions will emerge. Not only does Lucchesi lead us to revisit art history of the past through this work, but he also lets us discover the almost forgotten truths.

Let's take a look at works that are not so familiar. Amongst pieces of grave meanings and importance, there are artworks that look like they have popped out of a Disney cartoon. One of them is dominated by crimson and yellow lights, like the face of a mischievous and malicious bird. Beneath those bright eyes protrudes a massive beak gobbling on something that looks like wild grass. Alarmed by

a piece suddenly deviating from overall atmosphere and theme, I hastily check the title to see *Liberia*. It is an expression of animal god worshiped by Guerze people in Liberia. It is different from any African sculptures we know, that are primitive and full of absolute fear. In such ways, Lucchesi's works expose the nature of those external and superficial beings to discover other elements hidden inside the objets and also inform the viewers of how they are produced. Modern technology fused with the artist's creativity results in a massive gap in imagination between the familiar classics and stereotypes. The bigger the space of this gap is, the richer our interpretations and imaginations will become. More than anything, he presents art made from light that's reinterpreted in his own methods to introduce the viewers into a new world.

#### Conversation of Light and Space

Lucchesi differentiates photography from his work by saying "photography shoots 'the visible' but x-ray shoots 'the invisible'". While Western formative art so far has been 'external art' describing the surface, x-ray art is surely an 'inner art' in a more expanded sense. Lucchesi often refers to it as 'inner landscape' that shows the inner frames but it reveals also the flow of energy. His art philosophy was influenced by 'landscape art from far east, especially those painted by Bada Shanren'. This landscape art is an art of space. Space is room of light and light maneuvers within the space. While this space was of importance in Asia, 'light' has always been a critical theme in the west from the very beginning. Western art history prior to the modern era was history of 'light' while Eastern art history was history of 'space'. Numerous gods and goddesses from Mount Olympus were described as 'light', 'rays', or 'thunderbolts' and from the renaissance era the recreation

of 'light' becomes more systematic and popular with the emergence of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Eastern world has always emphasized 'space'. Rarely is source of light (for instance, light coming through the window, fire, or sun) described. Moon may appear once in a while but not as source of light but as an expression of emotion. Because the source of light is not depicted, it's hard to tell where light comes from in a traditional Korean painting. In it light is insignificant and as a result gradation revealing dimension of an object or shadows resulting from light are absent. In Lucchesi's art, light encounters space and the play of light is visualized. Followed by Ovid's linguistic *Metamorphosis*, Picasso created visually magnificent *Metamorphosis II*. With these as materials, Lucchesi presents yet another 'transformation' named *Picasso, Metamorphosis II*, to show us the maneuvers of an artwork crafted with light within the 'space' that is a room of light. At times it is fine for the audience to let go of art's historical background and enjoy art as is. Although it uses the 'original' as matière, Lucchesi's work is beyond the ties of 'resemblances' but is already in a relationship of 'similitudes'.

1. Cf. Artwork title *Mona Lisa* refers to the original painting by Leonardo da Vinci while title listing the name of artist together with artwork as in *da Vinci, Mona Lisa* refers to Xavier Lucchesi's x-ray art. Meanwhile works related to Africa mentioned in this text only refer to those by Lucchesi therefore artist name will not be mentioned with artwork titles.



#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1519, 이탈리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출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과학, 의학, 미술, 건축 등을 망라한 다방면의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였다. 미술에 있어서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바위 산의 성모〉 등의 여러 명작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피렌체 시기(1466~1482)와 제1밀라노 시기(1482~1499), 제2밀라노 시기(1506~1513)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밀라노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에서 그의 화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스fumato와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Leonardo da Vinci, *Mona Lisa*  
Ultra-violet fluorescence negative, 2016



Leonardo da Vinci, *Mona Lisa*  
Infra-red negative, 2016





Leonardo da Vinci, *Mona Lisa*  
X-ray & Black-and-white negative, 2016



Leonardo da Vinci, *Mona Lisa*  
Color negative, 2016



Leonardo da Vinci, *Mona Lisa*  
Craquelures of painting, 2016







Leonardo da Vinci, *Saint Jean Baptiste*  
X-ray, 2016

Leonardo da Vinci, *The Lady with the Ermine*  
X-ray, 2016



Leonardo da Vinci, *The Virgin of the Rocks*  
Emissiography, 2016





# NICOLAS POUSSIN

니콜라 푸생, 1594~1665, 프랑스



렘브란트, 루벤스와 함께 17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 푸생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모습을 재현한 프랑스 고전주의 양식을 정립한 인물이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라파엘로의 작품에 경도되어 로마로 떠나, 카라바조와 같은 인물들의 화풍을 배웠으나 바로크 미술의 경향과는 다른 화풍의 작업을 이어갔다. 푸생은 뚜렷한 윤곽선과 밝은 색채의 그림을 그렸으며 신화를 소재로 한 신화화와 종교화를 여러 점 남겼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루이 13세 시절 수석 궁정화가로 임명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평생에 영향을 주었던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가 생을 마쳤다.

Nicolas Poussin, *Echo and Narcissus*  
X-ray,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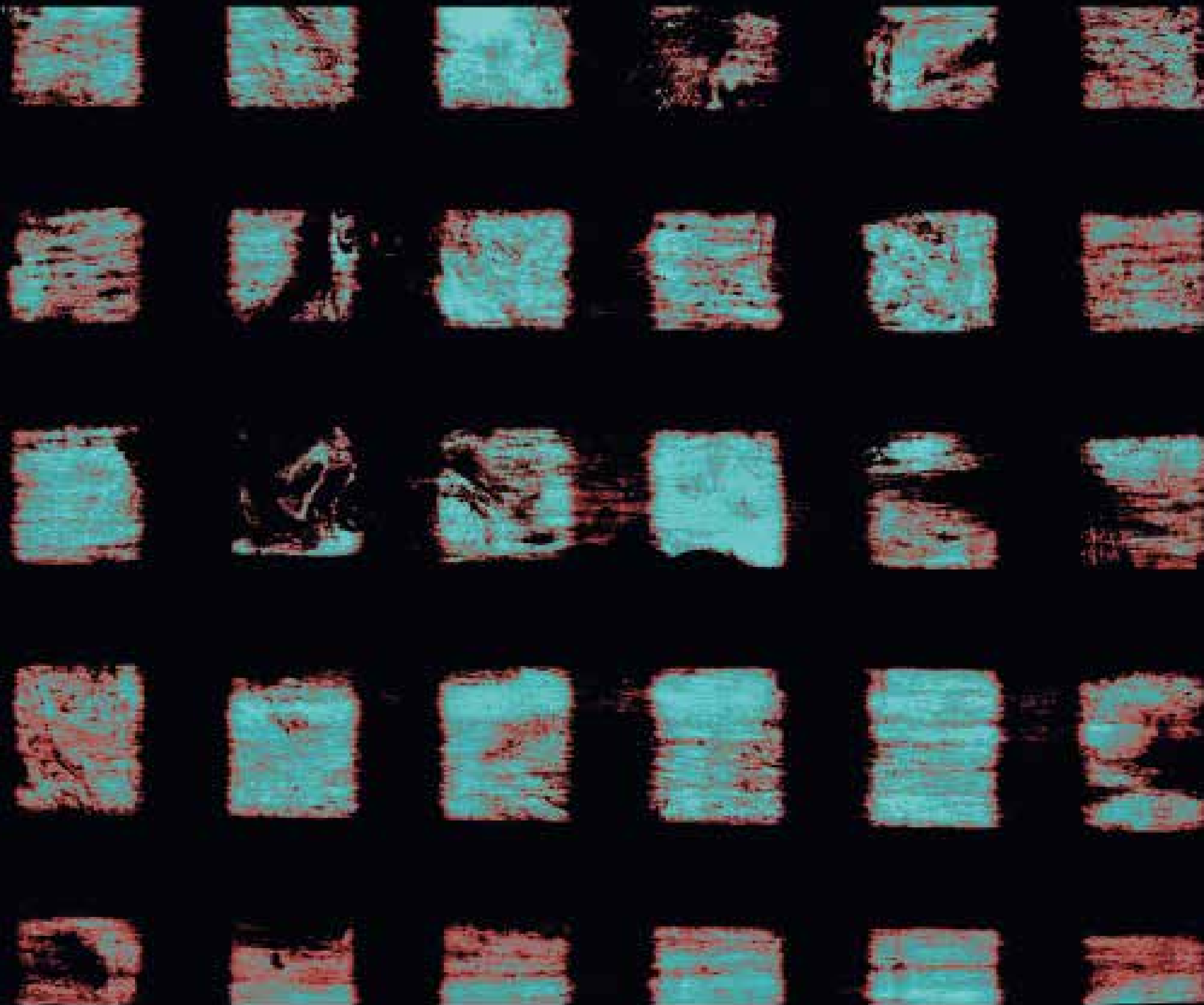
# REMBRANDT HARMENSZ VAN RIJN

렘브란트 하르먼스 반 레인, 1606~1669, 네덜란드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한 화면의 극적인 효과를 적절히 표현하여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종교나 신화를 소재로 한 회화를 비롯해 인간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품을 남기고자 여러 작품을 그렸는데, 유럽 회화 사상 최대의 회화와 판화 작품을 남긴 작가로 꼽을 수 있다. 렘브란트는 특히 많은 초상화를 그렸는데 당시 상공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에서 초상화의 수요가 높아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대표작으로 명암의 대비가 뛰어나게 표현된 〈야경〉(1642)이 있으나, 당시에는 혹평을 받아 초상 화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다.





# EUGÈNE DELACROIX

외젠 들라크루아, 1798~1863, 프랑스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들라크루아는 신 고전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종교, 신화, 역사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극적이고 낭만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룬 유화, 수채화, 판화 등의 여러 종류의 평면회화 작품을 남기며 그의 낭만주의적 성격을 드러냈다. 대표작으로 1830년 7월 프랑스혁명의 모습을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있다.

Eugène Delacroix, *Self-portrait*  
X-ray, 2000



# JEAN-DÉSIRÉ GUSTAVE COURBET

장-데지레 귀스타브 쿠르베, 1819~1877, 프랑스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로 잘 알려진 쿠르베는 "망막에 비치지 않는 것은 그리지 말라"는 그의 신조를 따라 보이는 것만을 옮기는 것을 진정한 회화라 여겼다. 이러한 쿠르베의 성격은 특히 하층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사회적인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다. 활동 초기인 1840년대의 많은 자화상이 남아 있는데, 〈절망적인 남자〉(1845)와 〈파이프를 문 남자〉(1849)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그는 자화상 속에서 극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는데, 시인, 농부, 음악가 등의 모습을 한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재창조해나갔다.



Gustave Courbet, *Marc Trapadoux is Examining the Book of Prints*  
X-ray, 2000





Gustave Courbet, *The Clairvoyant*  
X-ray, 2000



Gustave Courbet, *The Desperate Man*  
X-ray, 2000





Gustave Courbet, *The Wounded Man*  
X-ray,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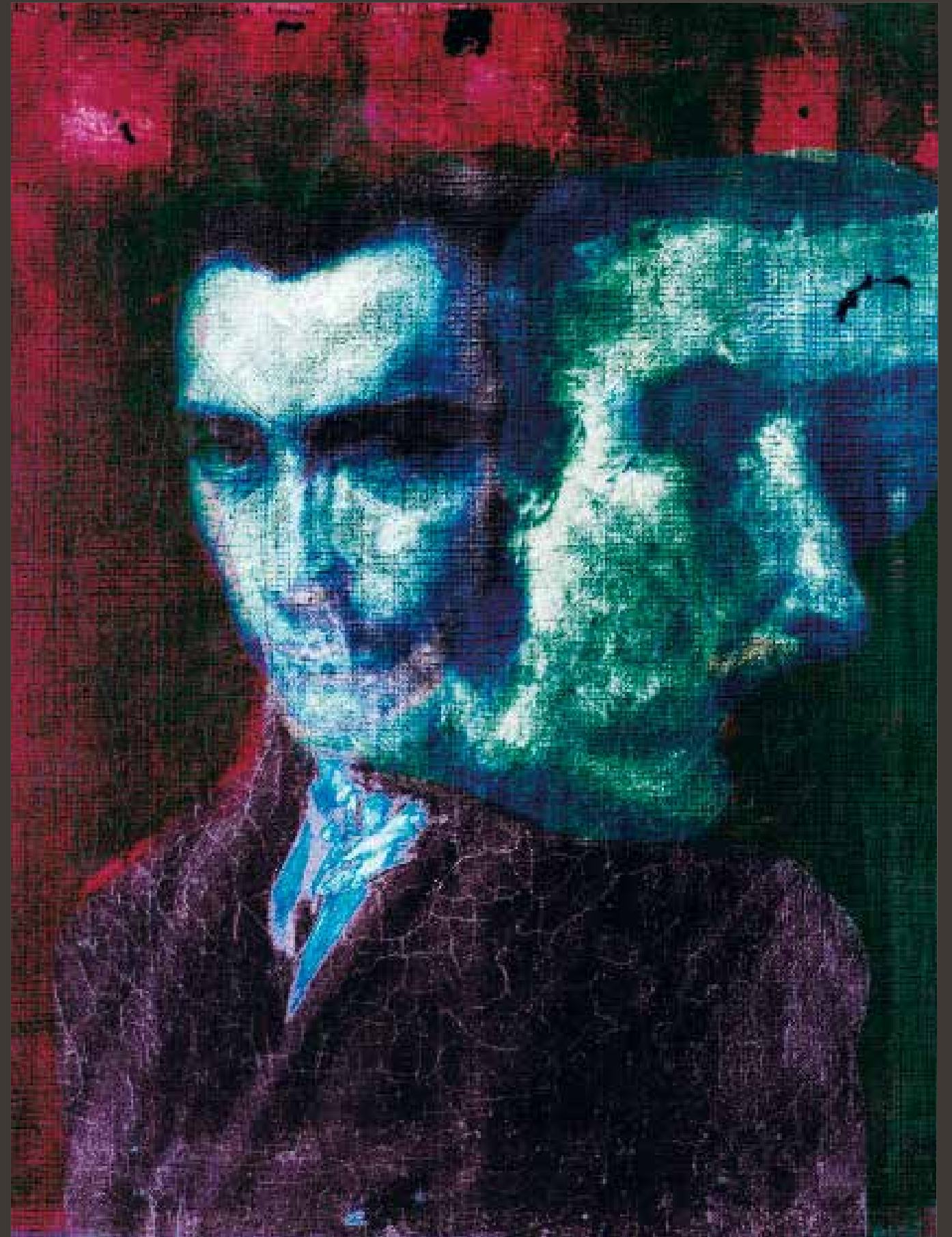
Gustave Courbet, *Portrait of a Man*  
X-ray, 2000





Gustave Courbet, *White Bull and Blond Heifer*  
X-ray, 2000

Gustave Courbet, *Portrait of Charles Fourier*  
X-ray, 2000





Gustave Courbet, *Portrait of Charles Baudelaire*  
X-ray, 2000

Gustave Courbet, *General Cluseret in Northern Uniform*  
X-ray, 2000





# EMMANUEL FRÉMIET

임마뉴엘 프레미에, 1824~1910, 프랑스



프랑스의 조각가로 앙투안-루이 바리에게 영향 받아 동물의 모습에 집중하였다. 주로 청동으로 동물 조각을 작업했으며, 1850년대에는 여러 나폴레옹의 조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현재 파리의 피라미드 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잔 다르크 동상이 대표작으로 남아있다.



Emmanuel Frémiet, *Cleopatra*, X-ray, 2000

# EDOUARD MANET

에두아르 마네, 1832~1883, 프랑스



마네는 프랑스 근대회화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이어지는 시기에 인상파 화가들과 함께 활동했으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작품을 보여주고자 했다. 비록 그림을 배우기 위해 고전 회화를 모사하기도 했으나 대표작인 〈올랭피아〉(1863)를 통해 아카데미적 화풍을 보이지 않으려 했음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마네의 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평평한 공간의 표현과 강한 색채감은 이후 여러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미술사에서는 그의 새로운 시도를 모더니즘 미술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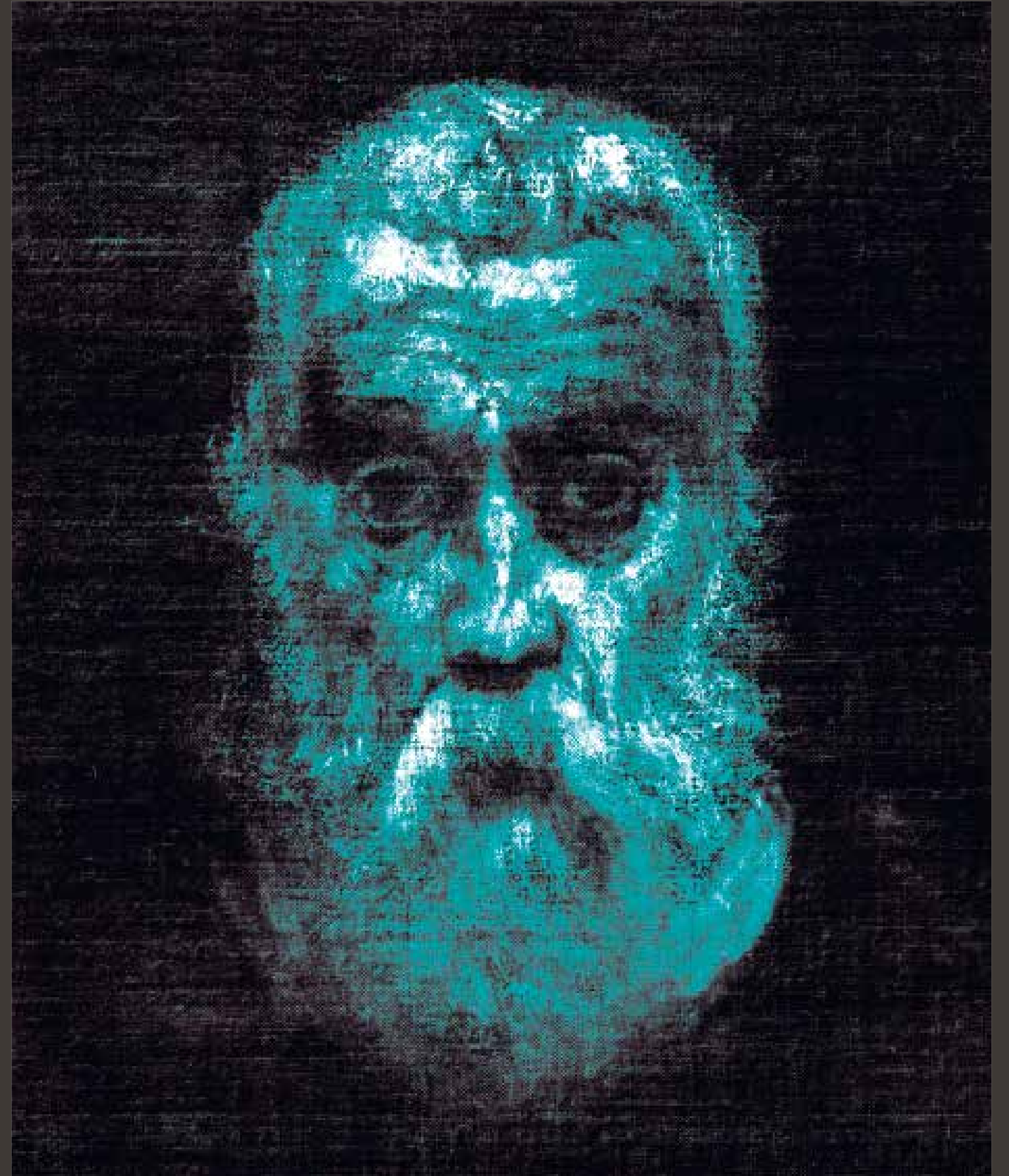
Edouard Manet, *Portrait of Emile Zola*  
X-ray,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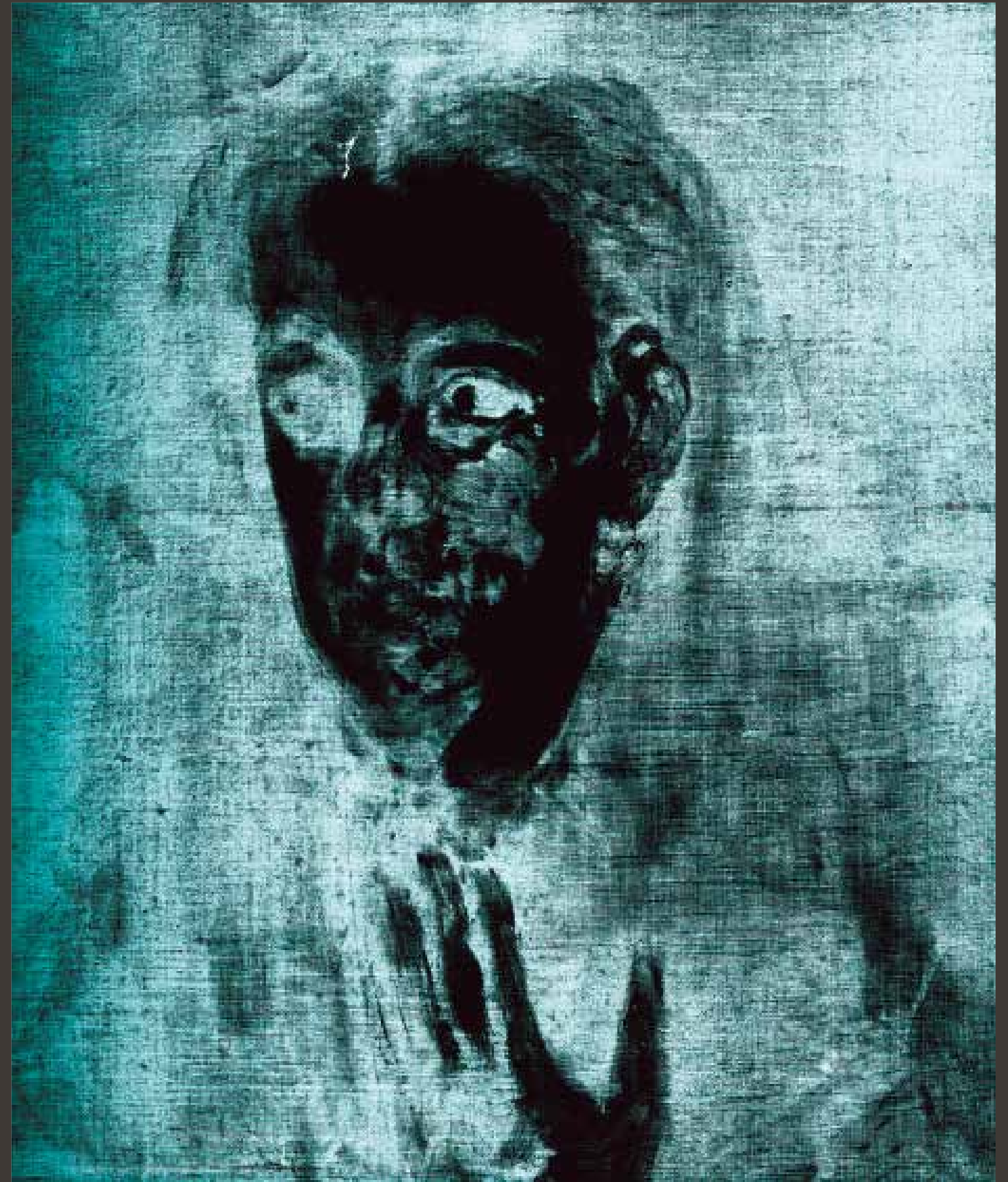
Edouard Manet, *Portrait of a Boy*  
X-ray, 2000



Edouard Manet, *Copy of Tintoretto's Self-portrait*  
X-ray,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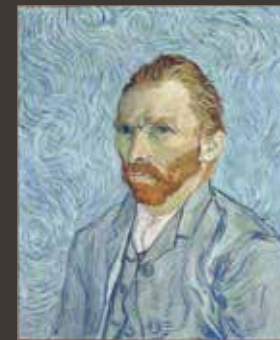


Edouard Manet, *Angelina*  
X-ray, 2000



# VINCENT VAN GOGH

빈센트 반 고흐, 1853~1890,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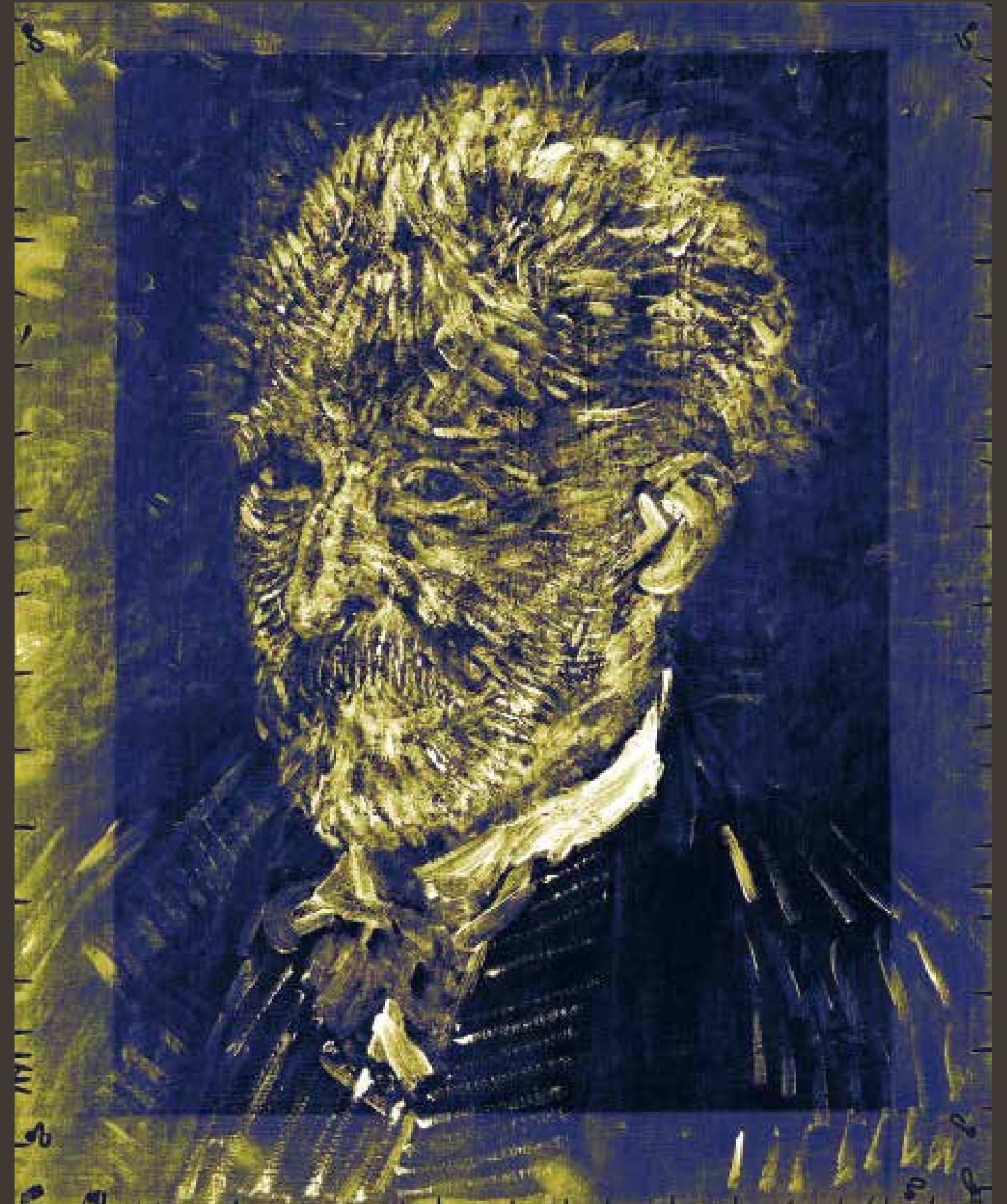


후기 인상주의 작가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고흐는 이른 생을 마감하였으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화법과 색채는 이후의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20세기의 여러 미술 운동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했다. 고흐는 쿠르베, 밀레, 들라크루아와 같은 작품에 감탄하고 훌륭한 작품으로 보았으며, 그들의 작품을 그의 화풍으로 모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유럽으로 유입되어 유행했던 일본 목판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 그의 작품 곳곳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러 풍경화와 많은 초상화를 남겼는데, 특히 자화상에는 시간에 따라 그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한 듯 작업의 형식과 색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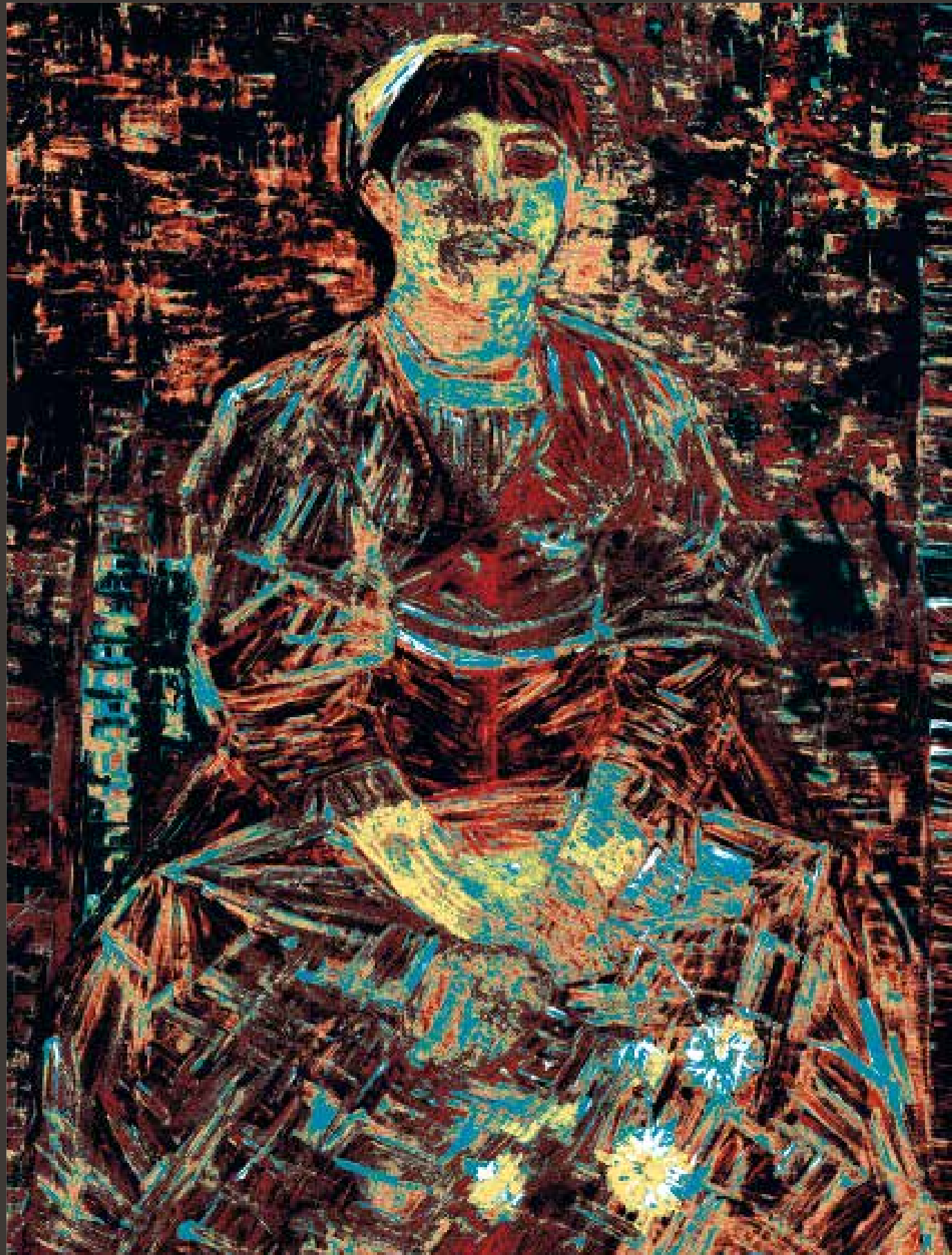
Vincent van Gogh, *Self-portrait*  
X-ray, 2000



Vincent van Gogh, *Self-portrait*  
X-ray,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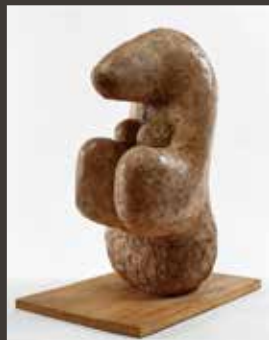
Vincent van Gogh, *Italian Woman*  
X-ray, 2000



Vincent van Gogh, *Portrait of Father Tanguy*  
X-ray, 2000

# PABLO PICCA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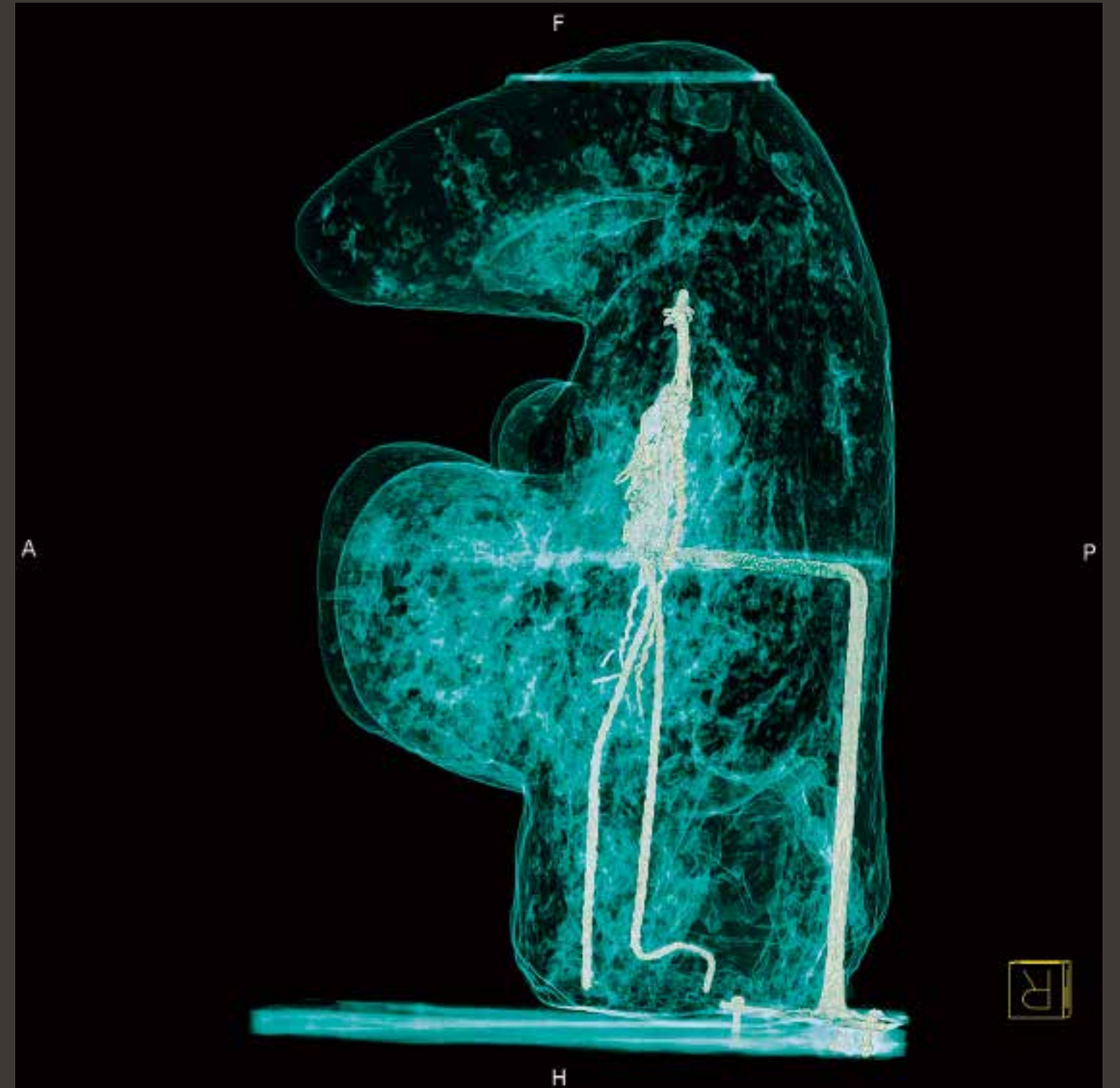
파블로 피카소, 1881~1973, 스페인



입체파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진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출생하였으나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약 1만 3500여 점의 회화 작품과 700여 점의 조각으로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각 시기에 따라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회화에서는 청색 시기, 장밋빛 시기, 큐비즘 시기, 고전주의 시기, 초현실 시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조각에 있어서는 나무, 금속, 진흙 등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고대 그리스부터 아프리카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를 작품 소재로 삼았다.



Pablo Picasso, *Bust of a Woman*  
X-ray, 2006



Pablo Picasso, *Metamorphose II*  
X-ray, 2006







Pablo Picasso, *The Grim Reaper*  
X-ray, 2006

Pablo Picasso, *Little Owl*  
X-ray,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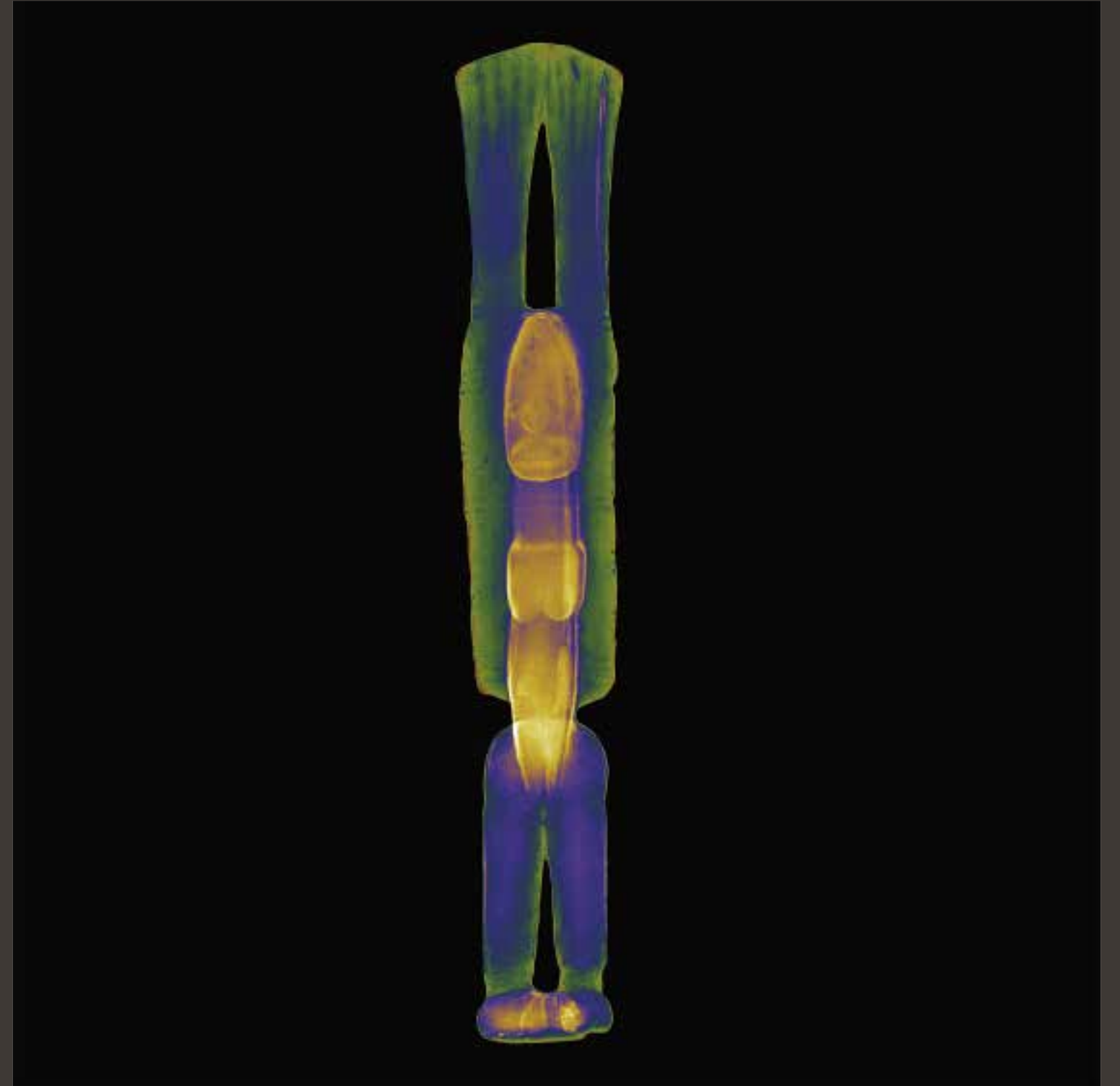
# AFRICAN SCULP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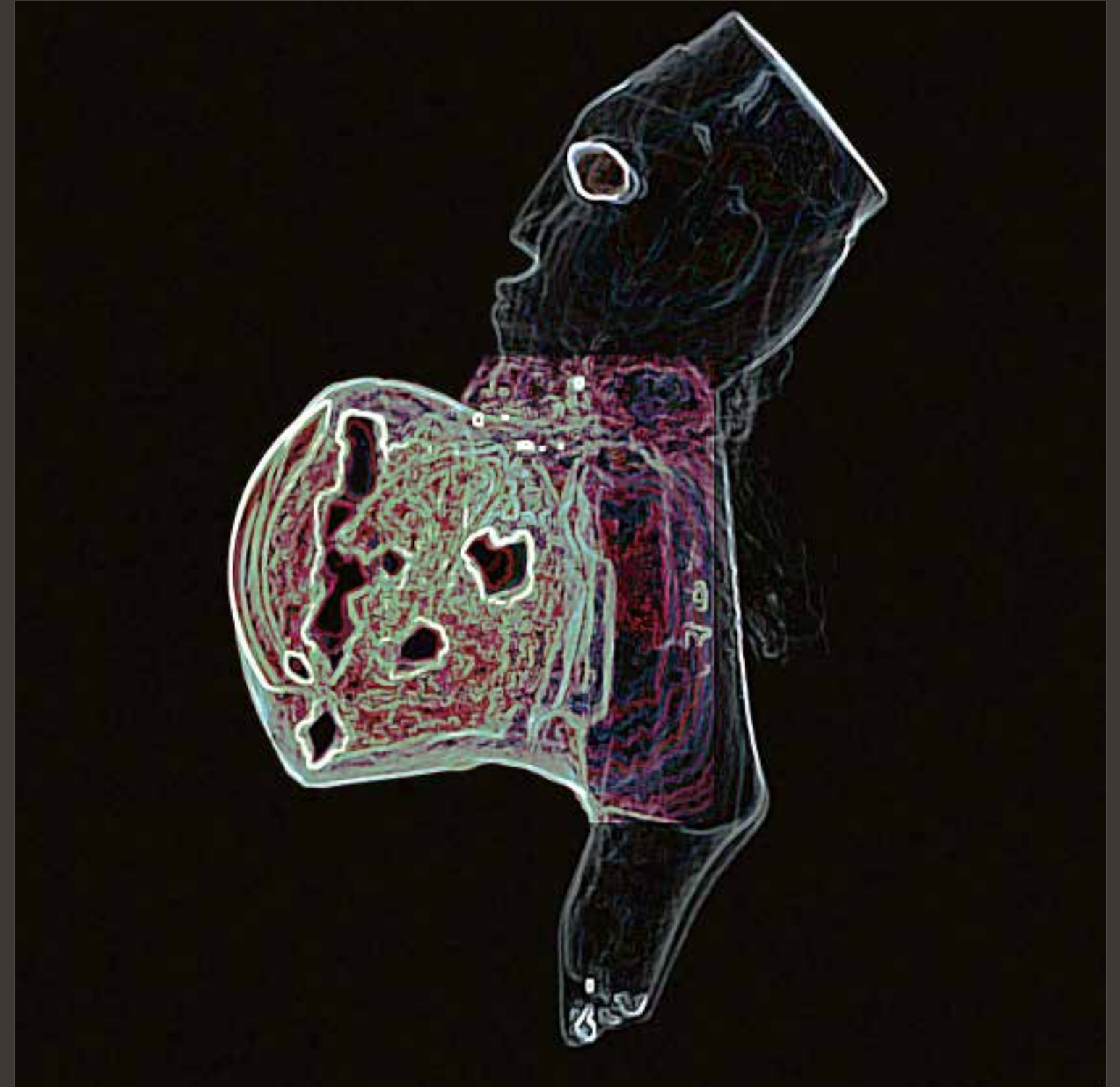
아프리카 조각상



아프리카의 조각은 그들의 문화와 개성이 담겨있는 예술로서 평가받는데, 특히 나무를 깎아 만든 인물 조각과 가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인 라이베리아 공화국에서 가면을 만드는 문화는 한 종족의 사회구조와 연결된 예술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말리의 도곤 족은 나뭇조각을 잘하는 부족으로 나뭇조각상과 가면을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조각가들을 마법을 가진 사람들이라 특별히 여기기도 한다. 이들이 만든 조각은 부족을 상징하거나 조상을 숭배하는 등 그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조각이 지닌 신비롭고도 이국적인 느낌은 여러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피카소를 들 수 있다.

*Anthropomorphic Statuette*  
X-ray, 1998





*Figure Congo*  
X-ray, 1998





*Reliquary Bust*  
X-ray, 1998

*Joko*  
X-ray, 2003



17–25p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  
모나리자 *Mona Lisa*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26p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  
세례 요한 *Saint Jean Baptiste*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29p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 *The Lady with the Ermine*  
차르토리츠키 미술관 Czartoryski Museum

31p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  
바위 산의 성모 *The Virgin of the Rocks*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66p



임마뉴엘 프레미에 Emmanuel Frémiet  
클레오파트라 *Cleopatra*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70p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에밀 졸라의 초상 *Portrait of Emile Zola*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73p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소년의 초상 *Portrait of Boy*  
조세프-데슈레트 미술관  
Joseph-Déchelette Museum

75p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틴토레토의 초상 모사화  
*Copy of Tintoretto's Self-portrait*  
디종 미술관  
Dijon Museum of Fine Arts

35p



니콜라 푸생 Nicolas Poussin  
에코와 나르키소스 *Echo and Narcissus*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38p



렘브란트 하르먼스 반 레인  
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엠마우스의 순례자들 *Pilgrims at Emmaus*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43p



외젠 들라크루아 Eugène Delacroix  
자화상 *Self-portrait*  
루브르 박물관 Louvre Museum

47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판화책을 살펴보는 마크 트라파두  
*Marc Trapadoux is Examining the Book of Prints*  
트로이 현대미술관  
Troyes Modern Art Museum

77p



에두아르 마네 Edouard Manet  
안젤리나 *Angelina*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81p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자화상 *Self-portrait*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83p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자화상 *Self-portrait*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84p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이탈리아 여인 *Italian Woman*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48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투시자 *The Clairvoyant*  
브장송 미술관  
Besançon Museum of Fine Arts  
and Archeology

51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절망적인 남자 *The Desperate Man*  
개인 소장 Private collection

52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부상 당한 남자 *The Wounded man*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55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남성의 초상 *Portrait of a Man*  
개인 소장 Private collection

87p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탕귀 영감의 초상 *Portrait of Father Tanguy*  
로댕 미술관 Rodin Museum

91p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여성 흉상 *Bust of a Woman*  
파리 피카소 미술관  
Picasso Museum Paris

93p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변신 II *Metamorphose II*  
파리 피카소 미술관  
Picasso Museum Paris

94p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죽음의 신 *The Grim Reaper*  
파리 피카소 미술관  
Picasso Museum Paris

56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황소와 암소 *White Bull and Blond Heifer*  
귀스타브 쿠르베 미술관  
Gustave Courbet Museum

59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샤를 푸리에의 초상 *Portrait of Charles Fourier*  
아쟁미술관 Fine Art Museum of Agen

60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샤를 보들레르의 초상  
*Portrait of Charles Baudelaire*  
몽펠리에 파브르 미술관  
Fabre Museum Montpellier

63p



귀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북군 제복을 입은 클루즈레 장군  
*General Cluseret in Northern Uniform*  
오르세 미술관 Orsay Museum

97p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작은 부엉이 *Little owl*  
파리 피카소 미술관  
Picasso Museum Paris

101p



인간형상 조각  
*Anthropomorphic Statuette*  
파리 인류사박물관  
Museum of Mankind Paris

103p



콩고 조각상 *Figure Congo*  
케 브랑리 박물관  
Quai Branly Museum

104p



성유물함 흉상  
*Reliquary Bust*  
바비에 뮐러 박물관  
The Barbier-Mueller Museum

107p



침팬치 조크 *Joko*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The French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 작가 이력

자비에 루케지는 파리에서 엑스레이 작업을 한다. 그는 마르세유 프로방스 대학교에서 엑스레이와 사진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프랑스 외무부로부터 예술 기금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수여하여 러시아 엑스레이 프로젝트를 작업했다.

1988년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 미술관들이 조각 소장품에 대한 작업을 요청했다. 또한 루케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C2RMF(프랑스 박물관 연구 및 복원 센터)와 함께 아프리카 조각들의 엑스레이를 구현했는데 이는 C2RMF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예술 소장품을 엑스레이로 작업한 것이었다. 이후 이 조각들은 케 브랑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된다. C2RMF와 협업 이후, 작가는 프랑스 미술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렘브란트, 빈센트 반 고흐 등의 다양한 명화들을 엑스레이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2005년, 파블로 피카소의 아들인 클로드 피카소가 파리에 있는 피카소 박물관의 원작인 피카소 석고상에 대한 작업을 제안하였고, 2006년 자비에 루케지는 독일에서 의학용 스캐너를 어렵게 프랑스로 가져와 피카소 박물관에서 15개의 오리지널 피카소의 조각을 엑스레이 아트로 탄생시켰다. 이후 루케지는 그 작업들로 피카소 박물관에서 두 달 동안 개인전을 개최했다.

2016년, 프랑스와 한국의 수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엑스레이 작업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세계적 명화 엑스레이 작업들과 함께 2018년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THE UNSEEN》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 Artist's CV

Xavier Lucchesi is an artist living in Paris working mainly with x-rays. He studied at Marseille-Provence University and made his master's thesis on *X-rays and Photography*. In 1993, Lucchesi got an artistic grant ‘Leonard da Vinci’ from French Foreign Office to work on his project to make x-rays of russian society in total change.

In 1998, art museums in Africa and Oceania requested Lucchesi to work on an artistic project of museum's sculptures collection. Also, Lucchesi worked with C2RMF (Centre De Recherche et De Restauration des Musées de France) at Louvre Museum to realise x-rays of African sculptures. It was the first time that C2RMF realized x-rays on African art collection which became the collection of the Quai Branly-Jacques Chirac Museum. After his first collaboration with C2RMF, Lucchesi began to work on artistic x-rays of various paintings from French Museums such as Rembrandt, Vincent van Gogh etc.

In 2005, Claude Picasso (son of Pablo Picasso) proposed to work on Picasso's original sculptures from Picasso Museum in Paris. In 2006, Lucchesi brought a medical scanner from Germany to auscultate in artistic way of 15 originals plasters from Picasso Museum in Paris. Then realized an exhibition of x-ray works during two months at Picasso Museum in Paris.

In 2016, as celebrating 1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France and Korean, Lucchesi worked on Leonardo da Vinci's *Mona Lisa*. Finally 2018, *THE UNSEEN* at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will be the very first exhibition to present *Mona Lisa* x-ray with all other famous painting from French museums.

THE UNSEEN

이 책은 2018년 4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린 자베이 루케지 사진전 《THE UNSEEN》과 연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장소 한미사진미술관  
기간 2018년 4월 14일~ 6월 2일  
주관, 주최 한미사진미술관

전시

기획 및 진행 한미사진미술관  
학예실장 손영주  
학예연구원 김선영, 김지현  
학예연구원(교육) 홍혜주  
인턴 박준영, 이다영, 이지혜

출판

편집 한미사진미술관  
글 심은록, 김지현  
번역 손주희(국-영)  
인쇄 및 제본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8년 4월 14일 초판 1쇄  
발행인 송영숙  
발행처 가현문화재단  
055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19, 20층

©2018 한미사진미술관  
©2018 자비에 루케지  
©2018 심은록  
©2018 김지현

주최 Organized by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한미사진미술관

후원 Supported by

GA-HYEON 가현문화재단 Hanmi Hanmi Science Co., Ltd.

THE UNSEEN

This publication is accompanied by the exhibition *THE UNSEEN* at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from April 14, 2018 through June 2, 2018.

Venue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Period April 14, 2018~ June 2, 2018  
Organized by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EXHIBITION

Curated by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Senior Curator SON Young-joo  
Curator KIM Sunyoung, Jeehyun KIM  
Educator Hyeju HONG  
Intern PARK Junyoung, LEE Dayoung, LEE Jihye

PUBLICATION

Edited by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Text by Eunlog SIM, Jeehyun KIM  
Translated by Juhee SON(KOR-ENG)  
Printed by Graphic Korea Ltd.

First Published April 14, 2018  
Published by Song Youngsook  
Ga-Hyeon Foundation of Culture  
Hanmi Tower(19th, 20th floor), 14 Wiryeseong-daero,  
Songpa-gu, Seoul 05545, Republic of Korea

©2018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2018 Xavier Lucchesi  
©2018 Eunlog SIM  
©2018 Jeehyun KIM

Printed in Republic of Korea  
ISBN 978-89-93748-72-7 93660

한미사진미술관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055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19, 20층  
Hanmi Tower(19th, 20th floor), 14 Wiryeseong-daero, Songpa-gu,  
Seoul 05545, Republic of Korea  
Tel +82 2 418 1315 Fax +82 2 418 1316  
www.photomuseum.or.kr photo@photomuseum.or.kr



THANKS TO

C2RMF

Musée du Louvre, Paris

Musée Picasso, Paris

Musée d’Orsay, Paris

Musée Rodin, Paris

Musée du Quai Branly Jacques-Chirac

Musée Fabre, Montpellier

Musée Déchelette, Roanne

Musée Arturo Lopez, Neuilly-sur-Seine

Musée des Beaux-Arts, Agen

Musée des Beaux-Arts et Archéologie, Besançon

Musée des Beaux-Arts, Dijon

Muse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Paris

Musée Gustave Courbet, Ornans

Musée d’Art Moderne, Troyes

Picasso Museum

M.Laurent Lebon, President of Musée Picasso Paris

Mme Virginie Perdrisot, Conservator of patrimoine in charge of sculptures

Mme Emilie Bouvard, Conservator of patrimoine in charge of paintings (1938-1973) and contemporary art

Picasso administration : M. Claude Ruiz Picasso, Mme Sylvie Ruiz

Picasso, Mme Christine Pinault, Mme Claudia Andrieu, Mme Basia

Embiricos

Quai Branly Museum

M.Stéphane Martin, President of Musée Quai Branly-Jacques-Chirac

M.Aurelien Gaborit, Conservator, responsable of African collections

M. Jean-Hubert Martin, Former director of Musée d’Art d’Afrique et d’Océanie

M.Etienne Féau, Chief Conservator of patrimoine

M.Christopher Miles, Former general secretary of Ministère de la Culture

C2RMF

Mme Isabelle Pallot Frossard, Director of C2RMF

M. Jean-Pierre Mohen, Former Director of C2RMF

M. Michel Menu, Chief of departement of research

Mme Sophie Lefèvre, Director of communication

Mme Marie Lionnet, Charge of culture diffusion

M.Thierry Borel, Radiologist

Mme Elsa Lambert, Radiologist

Mme Elisabeth Ravaud, Radiologist

M.Jean-Louis Bellec, Photographer

M.Bruno Mottin, Conservator general of patrimoin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한미사진미술관과 해당 작가 및 필자의 서면 허가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f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